

## 타이밍(Timing)보다, 시장에 머무르는 시간(Time)이 중요합니다

Vol 02 | 2026년 2월 첫번째 주

### 1 “저점을 예측한다면 결과가 얼마나 달라질까요?”

2021년 4월\*부터 2025년 12월까지  
매월 100만원씩 S&P500 ETF 투자 가정

😊 동후	매월 최저점을 골라서 매수
😐 동윤	매월 첫 영업일에 기계적으로 매수
😱 승욱	매월 최고점만 골라서 매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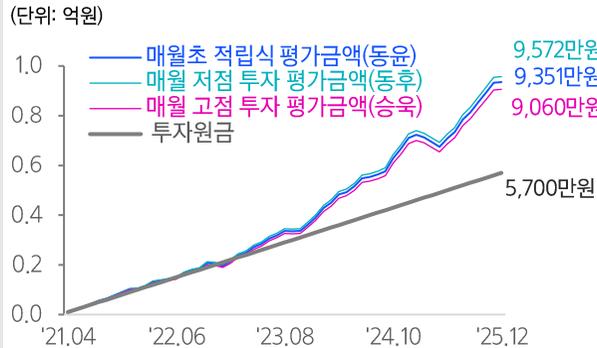
\* Kodex 미국S&P500 ETF 최초 설정일 기준(2021.04.07)

2021년부터 S&P500 ETF에 매월 100만원씩 투자한 세 사람이 있습니다.

‘동후’는 매달 **최저점**을 골라 투자 했습니다.  
‘승욱’은 반대로 매번 **최고점**에만 투자를 했습니다.  
‘동윤’은 무심한 직장인입니다. 가격은 고려하지 않고 **매월 첫 영업일**에 기계적 투자를 했습니다.

매월 저점에만 투자한 동후는 반대로 고점에만 투자한 승욱보다 얼마나 더 좋은 결과를 보였을까요?

### 2 “생각보다 타이밍은 중요하지 않습니다”



\*자료: Dataguide, 삼성자산운용

위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매월 저점에 투자한 동후와, 매번 고점에 투자한 승욱의 그래프는 거의 구분하기 어렵습니다. 승욱이 S&P500을 비싸게 투자했다라도, 시장의 장기적인 우상향이 그 차이를 상쇄했기 때문입니다.

장기투자자에게 매달의 고점과 저점의 차이는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 크지 않습니다.

### 3 “더 오래 머무르는 힘, 그것이 핵심입니다”

누적 투자원금: 57,000,000

구분	투자자	평가액(원)*	누적 투자금 대비 수익률
😊 동후	동후	95,722,269	+67.9%
😐 동윤	동윤	93,505,964	+64.0%
😱 승욱	승욱	90,602,805	+59.0%

\*자료 기준 및 유의사항 : Kodex 미국S&P500 ETF 순자산가치(NAV) 활용, 세 전 기준 수익률. 매월 투자금액은 물가 상승을 고려하지 않은 명목 금액이며, 종가기준 매월 첫 영업일(적립식), 월중 최저가(저점), 월중 최고가(고점) 체결을 가정. \*평가액 기준일: 2025년 12월 30일

타이밍을 재며 밤잠을 설친 동후와 불리한 타이밍에 투자했던 승욱, 맘편히 매 월 첫 영업일에 투자를 한 동윤. 세 사람 모두 누적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100%를 초과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. 완벽한 타이밍을 잡으려고 애쓰지 마세요.

스트레스 없이 **오래 머무는 것**, 그것이 우리가 장기투자에서 효과적인 접근법이 될 수 있습니다.

추천 PICK!

복잡한 시장, 단순한 해답  
**Kodex 미국S&P500 ETF**  
(379800)

기간 수익률(세전)	1개월	6개월	1년	3년	설정이후
ETF	1.00%	14.36%	15.65%	107.37%	131.47%
기초지수(BM)	1.04%	14.55%	16.03%	109.57%	136.11%

\* 합성총보수: 연 0.0888% (운용 0.001%, AP 0.0001%, 신락 0.005%, 사무 0.0001% 기타비용 0.0826%), 직전 회계연도기준 증권거래비용 0.1449% 발생, 위험등급: 2등급 (높은 위험)

\* 합성총보수 · 비용 및 총보수는 기준가격에 따라 매일 일할 계산하여 반영되며 증권거래비용, 기타비용 및 ETF 거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\* 자료: 삼성자산운용, 기준일: 2026년 1월 30일, 기준일 순자산: 8조 734억원, 기초지수: S&P500 Index(KRW), 설정일: 2021년 4월 7일,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

#### CES 2026의 핵심 키워드 '로봇' 은풍, 국내 기업까지 확산

- 현대차가 촉발한 K-로봇산업 기대감 : 현대차그룹은 휴머노이드와 자율주행이라는 Physical AI의 양대 축을 모두 확보하며 테마의 핵심 기업으로 부상
- 대규모 민관협력 : M.AX 얼라이언스\* 출범, 기업이 이끌고 정부가 지원하는 휴머노이드 산업 개화기 돌입 (\*기업, 학계, 단체 포함 1,000여 곳)
- 이와 더불어 로봇 양산과 동반한 부품 밸류체인 업체들의 수혜가 기대되며, 특히 핵심 부품인 '액추에이터' 기업에 대한 기대감 확산 전망



\*보스턴 다이내믹스社 Atlas  
\*자료: 연합뉴스

\* 광고시점 및 미래에는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####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 발표한 미국 메모리 반도체

- 세계 5위 낸드플래시\* 제조사인 'Sandisk'는 시장 추정치의 2배 웃도는 실적 발표 후 추가 상승  
\* 낸드플래시 :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를 저장하는 비휘발성 메모리
- AI 산업이 '학습'에서 '추론'으로 영역을 확장하며 D램에 이어 낸드 메모리까지 병목
-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플랫폼 '베라루빈'은 전작인 '블랙웰' 대비 10배가 넘는 낸드 메모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, 낸드 수요 증가의 기폭제가 될 것\*으로 전망  
\* 출처 : Sandisk 컨퍼런스콜



\*자료: Sandisk

\* 광고시점 및 미래에는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#### FOCUS ① Kodex 로봇액티브 ETF (445290)

- 국내 로봇 산업을 주도하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ETF
- 삼성전자 로봇 계열사인 레인보우로보틱스(9.1%)를 비롯, 액추에이터 부품 제조업체인 로보티즈(7.9%),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보유하고 있는 현대차(5.2%) 등 국내 휴머노이드 핵심 기업 및 부품 밸류체인 기업 전반적 투자
- \* 합성총보수 : 연 0.5689% (운용 0.459%, AP 0.001%, 신탁 0.020%, 사무 0.020%, 기타비용 0.0689%)  
직전 회계연도 기준 증권거래비용 0.0231% 발생. 위험등급: 2등급 (높은 위험)  
\* 기준일 2026년 1월 30일 \* 구성종목 및 비중은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\* 합성총보수 · 비용 및 총보수는 기준가격에 따라 매일 일할 계산하여 반영되며 증권거래비용, 기타비용 및 ETF 거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#### FOCUS ② Kodex 미국AI반도체TOP3플러스 ETF(0151S0)

- AI 패권경쟁 변화에도 꾸준히 주목받는 미국 AI 반도체산업에 투자하는 ETF
- AI 반도체 TOP3(엔비디아, 브로드컴, TSMC)에 약 56% 수준 투자하며, AI 추론에 핵심적인 메모리 반도체 기업(Micron 13%, Sandisk 6% 등)까지 투자
- \* 총보수 : 연 0.490% (운용 0.569%, AP 0.001%, 신탁 0.020%, 사무 0.010%, 위험등급: 2등급 (높은 위험)  
\* 기준일 2026년 1월 30일 \* 구성종목 및 비중은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# Compliance Notice

- 본 자료와 관련한 저작권은 삼성자산운용에 있으며,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본 자료를 복제 및 배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.
- 본 자료는 참고 자료로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각종 자료와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된 것이나 본 자료의 내용이 향후 결과에 대한 보증이 될 수 없으며, 본 자료를 본래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삼성자산운용은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본 자료에서 소개하는 투자방법은 개별 투자자들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일반적인 내용으로써, 본 자료를 참고한 일체의 투자행위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투자자의 결정에 의하여야 하며, 당사는 투자자의 판단과 결정, 그 결과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외화로 표시되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환율변동 시 자산 가치가 변동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본 자료를 삼성자산운용 이외의 자로부터 입수하였을 경우, 자료 무단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제공자 및 이용자에게 있습니다.
- 집합투자증권을 취득 전 투자대상, 보수, 수수료 및 환매방법 등에 관하여 (간이)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- 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 및 환율변동,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(0~100%)이 발생할 수 있으며,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.
-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,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.
- 연금 외 수령시 세액공제 받는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한 기타소득세(16.5%)가 부과되며,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이익금 분배 방식은 투자 결과에 따라 월지급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,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하는 경우 투자 원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.
-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.
- 해당 자료는 특정종목을 추천하는 자료가 아닙니다.

이 자료의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,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될 수 없습니다.